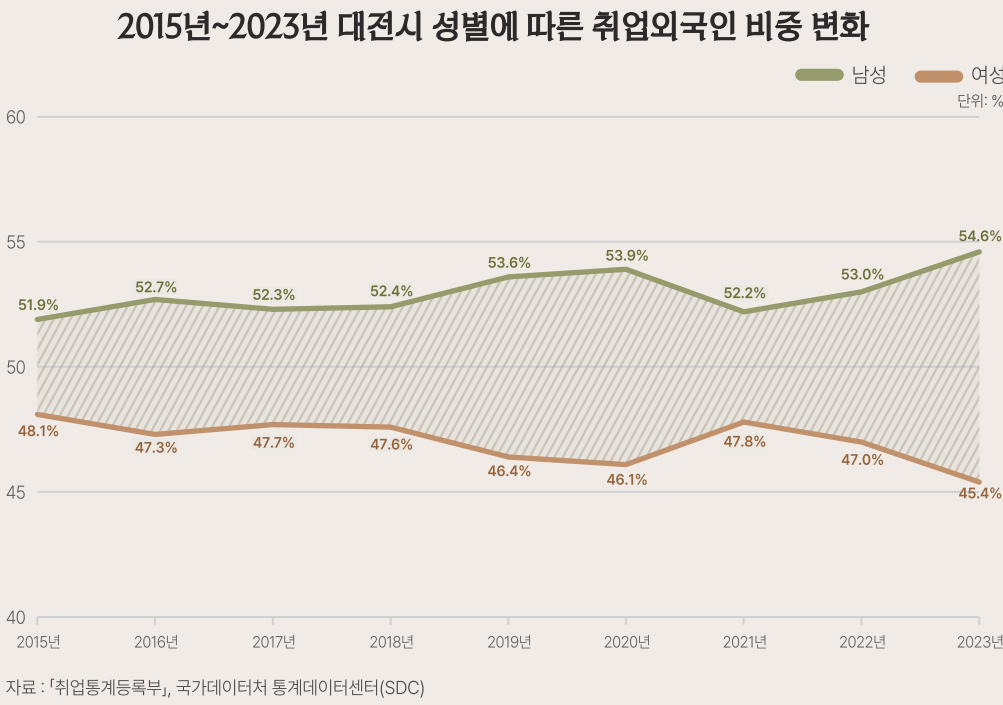


2024년 174만명
2023년 174만명
2022년 174만명
2021년 174만명
2020년 174만명
2019년 174만명
2018년 174만명
2017년 174만명
2016년 174만명
2015년 174만명

대전의 일하는 외국인

대전 등록외국인은 여성, 취업외국인은 남성이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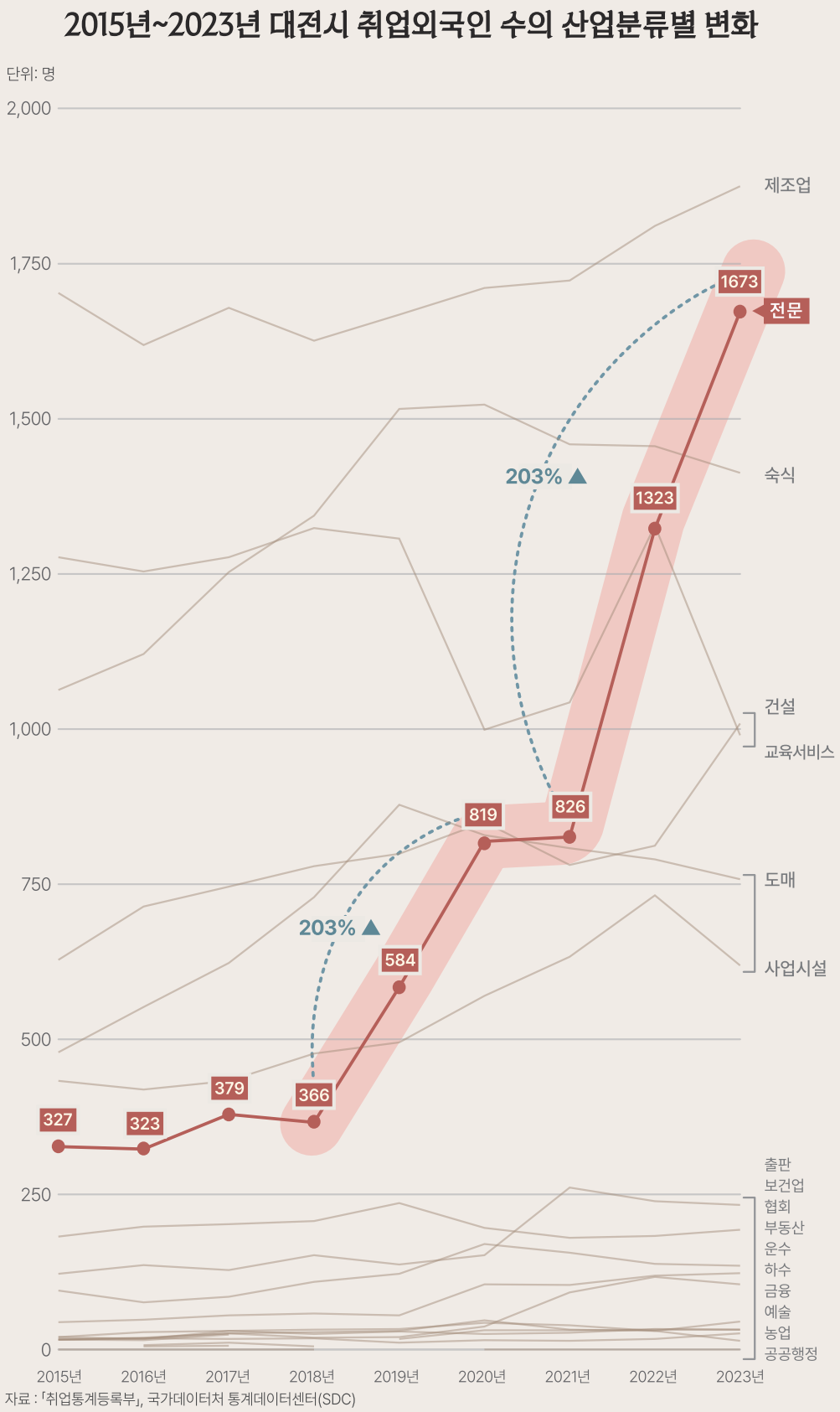
2015년~2023년 대전시 외국인의 성별에 따른 비중 차이를 보면, 등록외국인의 경우 여성(평균 54.1%, 10,391명)이 남성(45.9%, 8,868명)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지만, 취업 외국인은 반대로 남성(평균 53.0%, 평균 4,138명)이 여성(평균 47.0%, 평균 3,666명) 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점점 늘어나는 '전문' 분야 취업외국인 수

산업분류별 취업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전문' 분야 취업외국인 수가 2018년 (366명) 대비 2020년(819명)에 223%(456명) 증가했고, 2021년(826명) 대비 2023년(1,673명)에 203%(847명) 증가했다.

대전시의 '전문' 분야 취업외국인 수는 두 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18년 7위에서 2023년 2위로 올라섰다.



2015~2023년 취업통계등록부로 본 대전 취업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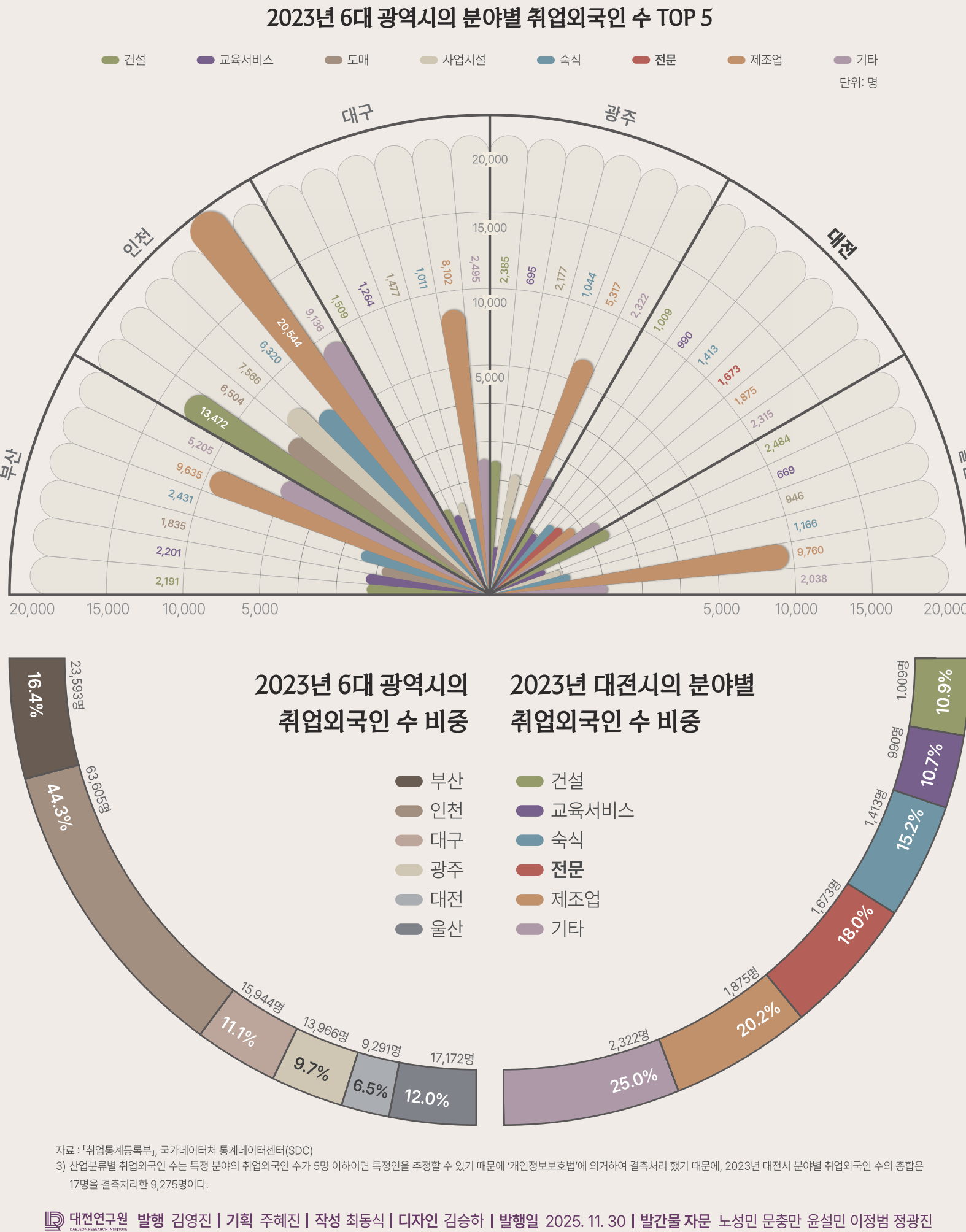
광역시 모두 제조업 종사 비율 제일 높은 가운데, 대전은 분야별 고른 분포

2015년~2023년 6대 광역시 취업외국인의 산업분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6대 광역시 모두 매년 '제조업' 분야의 취업외국인 수가 가장 많다.

부산시는 '제조업' 분야의 취업외국인 수가 2015년부터 하락세였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이다. 인천시의 경우 취업외국인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건설' 분야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구시는 취업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과 나머지 분야 간 격차가 8년 연속 크다.

광주시의 '건설' 분야 취업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광주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됐다. 대전시 역시 '제조업' 취업외국인 수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광역시처럼 1위인 '제조업'과 다른 분야 간 격차가 크지 않고, 주 분야를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조업', '전문', '건설', '숙식',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있다. 울산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하락세를 겪다, 2021년을 기점으로 상승 중이며, 제조업과 다른 분야들 간 격차가 크다.

2023년 대전시의 취업외국인 수는 6대 광역시 중 비중이 가장 적은 6.5%(9,291명)이지만, 산업분류별로 '전문', '건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다른 5대 광역시는 '제조업'에 취업외국인이 몰려 있다.³⁾



2023년 대전시 취업외국인의 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은 전국 '2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외국인의 전국 시도별 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전시'가 가장 높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울시'가 가장 높았다. 2023년 대전시 취업외국인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금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1위(서울시)와 2위(대전시)의 평균 근로 사업 소득금액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2위(대전시)와 3위 (인천시)의 격차도 다소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 구간이 3,000만원 이상인 시도에는 서울, 대전, 인천 등이 있으며, 2,500만원~3,000만원 구간에는 경기, 세종, 충북, 충남,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울산, 광주, 전북 등 11개 시도가 있다. 그리고 2,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강원, 전남, 제주가 속한다.

2023년 인구 10만명당 전문 분야 취업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대전시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